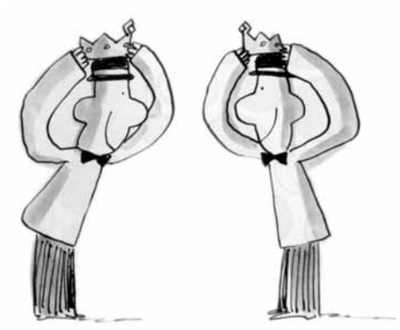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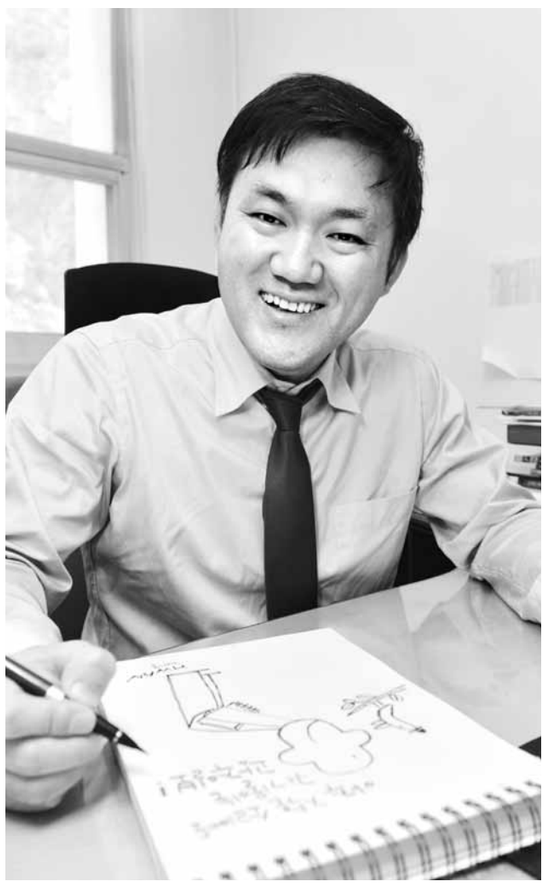
파울로 코엘료 신간 '마법의 순간' 삽화 그린 조선대 애니메이션학과 황중환 교수



코엘료 트위터 글 공감 직접 작업 기획
출판사 에이전트 접촉했지만 대답 없어
열정으로 그린 그림에 코엘료 "Good"



파울로 코엘료의 신작 '마법의 순간'을 기획하고 삽화를 그린 황중환 교수가 9일 그의 연구실에서 카툰을 그리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마법같은 글에 담은 마법의 카툰

언어의 '연금술사' 파울로 코엘료(Paulo Coelho·67). 마법 같은 글로 세계인의 영혼을 사로잡아온 그의 신작 '마법의 순간'이 출간됐다. 소설을 기대했던 독자라면 실망할지도 모른다. 코엘료가 트위터 상에 올렸던 최대 140자의 짧은 글들을, 삽화와 함께 엮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얀색 여백에 짤막한 글귀, 소박한 카툰이 어우러진 책은 색다른 매력을 선사한다. 노(老)작가의 메시지가 마법과도 같은 그림으로 되살아난 180여 장의 카툰도 인상적이다.

9일 이 책을 기획하고 삽화를 그린 카투니스트 조선대 미술대학 만화애니메이션학부 황중환(44)교수를 그의 연구실에서 만났다.

지난해 봄부터 조선대에서 학생들에게 애니메이션을 가르치고 있는 황 교수는 동아일보에서 지난 13년간 '386c'라는 카툰을 그렸다. 고도원 작가, 함민복 시인 등과 함께 작업을 하는 등 출판한 책도 이십여권에 달한다. 교과서에도 그의 카툰이 나온다.

그는 어떻게 코엘료의 책에 삽화를 그리게 됐을까. 황 교수와 코엘료를 이어준 것은 트위터(twitter)였다. 그는 주로 일상 속에서 느낀 생각을 카툰으로 옮기지만 가능하면 다양한 정보를 접하려고 노력했다. 도서관을 일터 삼아 다니면서 고전, 에세이, 소설, 심지어 성경, 코란 등을 탐독했다. 그리고 몇 년 전부터는 해외 작가, 영화감독, 스포츠인들의 SNS를 통해 세계인의 생각을 읽었다.

"트위터에서 '파 선생님'(황 교수는 코엘료를 이렇게 불렀다)의 글을 보면서 내 카툰과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구 반대편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3년 전에 파 선생님의 글과 내 카툰을 엮어보고 싶어 출판사에 말했더니, 출판사 에이전트가 곧장 런던 북페어로 날아간 거예요."

답은 뜨뜻미지근했다. 황 교수의 이력만 보고는 작업을 할 수 없다는 거였다. 실망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무작정 코엘료 글에 그림을 입혔다. 언어는 다르면 이해시키기 힘들지만 카툰은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작전은 성공했다. 코엘료가 직접 엄지손가락을 들어올렸다고 한다.

코엘료가 보내 준 글귀들을 가지고 펜을 들었지만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 끓었던 담배도 다시 입에 댔다. "지난 3월 개인전을 하고 나니 머릿속 생각들이 정리되더라고요. 그걸 찾는데 1년이 걸린 셈이죠. 워싱턴에서 사온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면 항상 '보사노바 블랙퍼스트'라는 미국 라디오 음악방송을 틀어 놨고요.(웃음) 파 선생님의 생각을 느끼고 싶어서죠. 책에는 브라질 출신인 코엘료를 위한 '서비스'도 숨어 있습니다."

그는 삽화들을 2달 만에 완성했다. 연구실과 집을 오가며 펜으로 그리고 그 위에 물감을 칠했다.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코엘료의 글을 읽고 한참 생각했다. 하지만 황 교수는 코엘료와 만나거나 메일을 주고 받은 적이 한차례도 없다. 그의 글에 대한 나름의 해석을 해보고 싶었기 때문이란다.

"코엘료의 트위터를 800만 명이 팔로우 하지만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에 실린 코엘료의 글 모두가 제 마음을 움직인 것도 아니고요. 어쩌면 제가 그린 카툰이 코엘료의 생각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고, 책을 읽은 독자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 때문에 에이전트를 통해 방향을 정하는 것 외에는 소통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파 선생님이 책을 보고 더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한번 만날 예정입니다."

코엘료는 책이 출간되자 트위터에 소개했고 수많은 독자들이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카툰은 그림으로 그리는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때문인지 카툰을 그릴수록, 간단해지더라고요. 더 많은 메시지를 담으려는 노력이기도 하죠."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완벽 보상하라" 남양유업 불매운동 확산

"대국민 사과 진정성 없어" 대리점 피해협 반발
20일부터 600만명 자영업자 대대적 전개 방침

'밀어내기(대리점 강매)', '영업사원 폭언' 등으로 '갑의 횡포' 논란이 확산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당사자인 남양유업이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제품 불매 운동 등 국민적 공분은 사그라지지 않고 확산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남양유업 피해자가 만족할만한 보상책을 제시하지 않으면 20일부터 600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이 일제히 남양유업 상품을 팔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김웅 남양유업 대표 등 남양유업 임직원은 9일 서울 중림동 브라운스톤에서 회견을 갖고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련의 사태에 대해 회사의 대표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고개 숙여 국민여러분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남양유업은 이 자리에서 대리점과의 상생 방안으로 대리점에 대한 지원을 2배로 늘려 연간 5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운영하기로 하고, 대리점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제도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논란의 중심이 됐던 '밀어내기'에 대해선 공동목표 수립제와 반송 시스템을 만들어 원천 금지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대리점 피해자협의회(이하 협의회)와 시민단체들은 "진정성이 없는 대국민 쇼"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또 골목상권살리기소비자연맹과 유권자시민행동, 한국시민사회연합회 등 150여개 시민사회·직능·자영업 단체는 이날 대기업 횡포에 무너지는 서민 자영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남양유업과 경영진, 대주주가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들에게 완벽한 보상을 해줄 것을 공식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남양유업이 변명과 형식적인 사과만 고집하면 오는 20일부터 600만명의 자영업자들이 동참해 남양유업의 모든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지난해에도 카드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를 요구하며 카드사에 대한 불매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중소가맹점 수수료율을 대폭 내린 바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독도 망언과 관련해 일본 담배 '마일드세븐' 등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네티즌들 역시 대국민 사과 내용을 두고 SNS 등에서 "백지수표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그동안 피해본 것은 어떡하느냐" 등의 비판 의견을 보였다.

한편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등 지역 중소상공인 시민단체도 별도의 지지성명은 내지 않았지만 중앙 시민단체의 뜻에 동조하며 전국적인 불매 운동에 동참할 방침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기아차, 새야구장 2016년 재협약 의무화

광주시와 기아자동차가 새 야구장 협약과 관련해 오는 2016년에 재협약을 의무화하기로 합의했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아차와 최근 협상을 갖고 새 야구장이 개장하는 2014년부터 2년동안 운영한 뒤 '야구장 운영 손익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새 야구장 사용·수익허가 협약을 재협약하기로 했다.

광주시와 기아차는 지난 2011년 12월12일 신설야구장의 사업비 일부(300억)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25년간 운영권 및 광고권을 허가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이를 2년후 실사를 거쳐 추가 협약하기로 한 것이다.

광주시는 재협약 때 민·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신설야구장 재협약을 위한 시민사회-광주시 거버넌스 구성'을 시민사회단체와 광주시의회 등에 제안했다.

거버넌스는 새 야구장과 관련해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과 야구장운영손익평가위원회 위원 추천 기능을 수행한다.

한편 새 야구장 재협상을 주장하며 광주시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해온 참여자치21은 이날 "광주시가 기아차와 2년후 재협상을 의무화한 것은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물이고, 진일보한 성과라고 평가한다"면서 "야구장이 완공된 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토대로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기를 바란다"며 시위를 중단했다. /박진표기자lucky@

기준금리 2.50%… 7개월만에 '깜짝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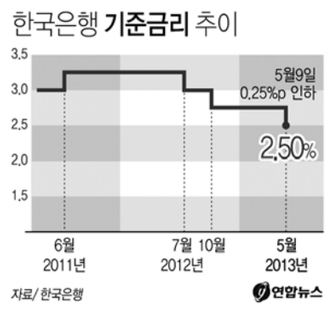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시장의 예상을 깨고 연 2.50%로 떨어졌다.

7개월 만의 인하다.

한국은행은 9일 김중수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연 2.50%로 결정했다.

이번 인하 결정은 올해 들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물가 상승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은 가운데 경기 회복세는 미약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내총생산(GDP) 성장이 잠재 성장률에 못 미치면서 저성장 고착화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 자체를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정부와 시장의 우려에 화답한 셈이다.



특히 아베노믹스로 상징되는 일본의 양적 완화에 따른 엔저 현상의 심화는 일본산 제품과 경쟁하는 한국산 제품의 경쟁력을 서서히 잠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발주사업 알선·청탁 땐
입찰취소·계약해지 등 제재

앞으로 국가가 발주하는 사업에서 부정한 알선이나 청탁을 한 업체는 입찰 취소나 계약 해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을 것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와 기재부의 협의에 따라 마련될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업체 사이에 체결하는 청렴계약서에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한다.

청렴계약서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와 해당 기관이 서로 뇌물을 주고받지 않고 위반시 제재를 받을 것을 서약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서울 동작구가 처음 도입했다.

알선·청탁의 금지 조항이 명문화되면 직접적으로 뇌물을 주고받지 않는 다양한 유형의 부정행위도 제재할 수 있게 된다.

이 조항을 위반하면 국가 발주사업의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해야 한다. /연합뉴스

정규직 사원모집

당사는 광주 삼성전자(주) 중, 대형 금형 수정/제작 전문 1차 협력업체로서, 2013년 물량증가 및 사세확장으로 인한 (광주 첨단2단지 內) 현지 공장 신설로 인하여, 참신하며 책임감 있으며, 근면 성실한 정규직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인원	자 격 요 건
금 형 사 상 (조립/분해)	00명	– 초보 가능 / 관련 직종 경력자 우대 – 사출금형(중/대형) 유경험자 우대
CAD/CAM	00명	– 학력 : 무관
CNC M/C	0명	– 나이 : 21~45세 이하(군필 및 이에 준하는 신분)
CNC 방전	0명	– 관련부분 자격증소지자 우대
와이어컷팅	0명	– UG 프로그램 사용자 우대(CAD/CAM)
사 출	0명	– 기타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분
3차원측정	0명	– 식당 / 청소 : 나이제한 없음 사내식당 유경험자
식 당 / 청 소	0명	사내청소 경험우대/초보가능

● 근 무 지 : 광주 첨단2단지 내
● 기 간 : 충원시 까지
● 급 여 : 면접후 결정
● 구비서류 : 1) 이력서 ····· 1 통
2) 사진 ····· 2 매
3) 주민등록등본 ····· 1 통
4) 건강진단서 ····· 1 통
5) 관련 자격증(해당자에 한함)

복지혜택
– 4대보험, 상여금(300%), 퇴직금, 기숙사, 근속수당, 성과제 인센티브
– 사내식당(조, 중, 석, 야식제공), 생일축하금, 명절선물, 월회식비지급
– 연/월차, 하계휴가, 경조휴가 등

전형방법
– 전화 후 회사방문(매주 목, 금요일 14시 정기 면접) / 구비서류 지참
– FAX 및 E-mail 접수가능(yooolll@naver.com)

(주) 신 흥 정 밀
TEL. 054-473-6697 FAX. 054-473-6698 H.P. 010-6309-2488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90평~280평(분할 · 합병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 입니다.
2. 각 필지별 상 · 하수도관려 연결공사 완료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4. 각 필지별 6m도로 접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62)952-5577

쉽게 치료되지 않는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고질적인 콧병 수술없이 다스린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용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적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두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맑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증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 등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콧병치료의 시작은 먼저 환자의 몸을 건강하게 회복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뚫는 데 중점을 두는데, 이환용 원장도 이런 과정을 통해 10여 년간 비염을 중점적으로 치료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을 만들어 효과적으로 비염환자들을 치료해주고 있다.

축농증, 알레르기성 비염, 비후성 비염 등 고질적인 코질환에 좋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유근피이다. 이 유근피에 살구씨, 신이화, 수세미 등 면역력 증강과 호흡기가 튼튼해지는 20여 가지의 약재가 가미된 평강한의원의 한약은 작은 환약으로 만들어져 어린이가 복용하기에도 수월하며, 고질적인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

평강한의원에서 치료하는 알약은 주재료인 참느릅나무 껍질인 유근피는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콧병에 잘 듣는다고 하여 일명 '코나무'로 불리던 것으로, 콧병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이 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며 염증이나 위장병 등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평강한의원에서는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인 유근피로 만든 한약을 환자들에게 처방한 결과 알레르기성 비염과 축농증을 비롯한 각종 코질환에 좋은 치료성과를 거두고 있다. 평강한의원의 이환용 박사는 자연을 이용하면 어떤 병이든지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0204-중-4738호